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5. 28. (목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외교부 중동1과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
문의	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김정대 과장 (044-203-5720) 외교부 아중동국 김은정 심의관 (02-2100-7476)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오재우 과장 (044-215-4750)		

의약품 등 인도적 교역 물품의 대이란 첫 항공 운송 성사

- 5월 중 50만불, 6월 중 200만불 상당 의약품, 의료기기 수출 예상
- 인도적 품목 및 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노력 지속

□ 4.6.(월) 재개된 인도적 물품의 대이란 수출의 첫 사례로 약 50만불 상당의 유전병 치료제가 5.29.(금) 이란으로 항공 운송될 예정이다.

○ 정부는 한국 시중 은행들에 예치된 이란 중앙은행(CBI, Central Bank of Iran) 원화 자금을 활용한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위해 미국 및 이란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. 그 결과 정부는 2019.9월 미국의 CBI에 대한 제재 강화로 중단되었던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4.6.(월) 재개한 바 있다.

○ 내일 금요일(5.29.) 이란으로 운송되는 유전병 치료제는 이번에 재개된 인도적 교역의 첫 운송 사례로서, 6월 중 약 200만불 상당의 의약품, 의료기기 등의 후속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정부는 그간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해 △두 차례의 우리 수출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, △주한 이란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이란과의 협의, △테헤란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한 이란 수입업체 접촉, △정부차원에서 양국 수출입 기업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.

○ 정부는 이번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 재개를 바탕으로 현재 의약품, 의료기기 위주의 교역 품목을 식품, 농산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및 이란과의 협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최수웅 사무관(☎ 044-203-57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